

# 한국과 호주 여성의 헤어스타일 선호도 및 헤어행동 비교

류 은 해 · 박 숙 현\*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 환경과 개인적 특질이 다른 한국과 호주 여성의 선호 헤어스타일과 헤어행동을 비교하여 동양과 서양여성의 헤어에 관한 인식과 선호도에 관한 차이를 살펴보고 문화와 환경이 다른 지역에서의 미용교육과 미용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차별화된 기초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본 연구를 위해 호주 멜버른지역 성인여성 208명, 한국 부산지역 성인여성 392명을 대상으로 호주에서 2003년 6월~8월, 한국에서 2003년 11월~2004년 2월에 본 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를 SPSS 10.0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통계 및 이원배치 분산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선호하는 머리길이는 연령별로 한국 여성의 경우 20대는 등의 중간정도 길이(45.5%), 30대는 어깨 길이 32.8%, 40대는 짧은 형(2.2%) 길이를 가장 선호하였고, 호주 여성의 경우 20대는 등의 중간정도 길이(33.9%), 30대는 단발 길이(35.2%), 40대 이상은 짧은 형 44.4% 머리길이를 선호하였다.

2. 선호하는 모발형은 국가별로 한국의 경우 직모 74.2%, 곱슬머리 20.2%, 아주 가는 곱슬머리 5.6% 순으로 선호하였고, 호주의 경우 직모 52.9%, 곱슬머리 37.5%, 아주 가는 곱슬머리 9.6% 순으로 선호하였다.

3. 선호하는 모발 두께에서는 국가별로 한국의 경우 중간정도 68.9%, 가늘다 20.4%, 굵다 42.0% 순으로 선호하였고, 호주의 경우 중간정도 66.8%, 가늘다 24.0%, 굵다 9.1% 순으로 선호하여 한국과 호주 여성의 굵은 모발에 대한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다.

4. 선호하는 염색의 기본색에서는 국가별로 한국의 경우 갈색 54.8%, 검정 29.1%, 밝은 금발 8.9%, 어두운 금발 7.1% 순으로 나타났고, 호주의 경우 갈색 38.0%, 밝은 금발 27.8%, 어두운 금발 21.5%, 검정 12.7% 순으로 선호하였다.

5. 선호하는 염색의 반사색에서는 국가별로 한국의 경우 Gold 35.3%, 선호하는 색이 없다 27.3%, Orange 13.9% 순이었고, 호주의 경우 Gold 41.1%, Red 22.8%, Orange 10.7% 순의 빈도로 나타났다.

6. 선호하는 펴의 종류에서는 국가별로 한국의 경우 아주 굵고 자연스러운 웨이브 펴 41.2%, 스트레이트 펴 17.9%, 굵은 웨이브 펴 17.4%, 중간 웨이브 펴 11.1% 순의 빈도를 보였고, 호주의 경우 선호하는 펴의 종류가 없다 52.9%, 스트레이트 펴 18.8%, 아주 굵고 자연스런 웨이브 펴 9.4% 순으로 나타나 한국 여성에 비해 호주 여성은 웨이브 펴를 선호하지 않는 것을 알 수

\* Corresponding author: shpark@star.ks.ac.kr

있다.

7. 헤어 행동에서는 첫째, 국적 및 연령별 분석에서 유행성과 개성에 대하여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났고, 국적별로 동조성의 차이가 매우 유의하게 존재하였다. 둘째, 국적 및 직업별 분석에서는 유행성과 심미성, 개성에 대하여 직업별로 매우 유의하였다. 셋째, 국적 및 외모 만족도별 분석에서는 동조성에 대하여 국가별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났고, 개성에 대하여는 외모 만족도별로 매우 유의하였다.